

# 러시아어 부탁 구문의 특징

강 성 희\*

## 0. 들어가는 말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한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 속에서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 부탁이란 피할 수 없는 인간 행위인 것이다. 부탁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는 언어에서부터 손짓, 몸짓, 눈빛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또한 행위의 종류, 청자와 화자의 관계, 발화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탁의 강도도 다양해져서 어떤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간절하게 또는 대수롭지 않게, 다양한 강도로 자신의 부탁을 표현한다. 미소를 띤 얼굴이나 진지한 표정, 눈물도 사용되거나 상황에 따라 부탁의 강도를 표현하는 특정 어휘나 특정 구문이 쓰일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어에서 부탁의 *вариативный ряд*를 구성하는 다양한 형태의 어휘-통사구조 중 기본적인 것을 분류하여 그 구조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뉘앙스를 가지고 발현되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부탁을 '의지 표명(волеизъявление)'의 한 형태로 보는데 의지 표명의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약간씩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그중 가장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는 하나의 의사소통과제(коммуникативное задание)로 보고자 한다. 의지 표명은 한편으로는 화자의 원망(желание говорящего)을 포함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떠한 행위를 요구(каузация действия)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화자의 원망 표현과는 차이를 갖는다. 즉, 본 논문에서 의지표명이란 화자의 원망과 행위 실행의 요구를 동시에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sup>1)</sup>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은 모놀로그가 아닌 대화인데, 그 기본적 요소로 문장

---

\*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강사.

1) 또한 의지표명에는 부탁 외에도 명령, 충고, 제안 등이 들어갈 수 있으며, 학자에 따라서는 협박이나 경고도 이 범주에 포함한다.

의 의사전달유형(коммуникативный тип предложения)을 채택한다. “의사전달유형이란, 예를 들면 질문, 명령, 부탁, 충고, 제안, 협박 등과 같은 일정한 коммуникативная целеустановка와, 내부에 단어의 의미적 분리(смысловое выделение)를 갖는 문장을 일컫는다.”<sup>2)</sup> 각각의 의사전달유형은 вариативный ряд를 갖는데, 이는 일정한 의사전달유형을 표현하는 동시에, 억양, 언어수단 사이의 상호관계, 레지스터,<sup>3)</sup> 대화상황 등에 의해 서로 차이가 나는 일련의 구조들의 집합이다.

의사전달유형 ‘부탁’의 표현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개의 어휘나 형태론적 특성, 문장의 통사적 구조만을 살피는 것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어떠한 발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든 언어수단과 억양, 그리고 문장의 문맥적 의미의 상호작용이 고려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즉, 특정한 어휘-통사구조는 위에서 언급한 상호작용이 없을 경우 일정한 의사전달유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것을 전달할 잠재적 가능성을 지닐 뿐이다. 그 잠재적 가능성은 어휘-통사구조, 억양, 문맥 등 다양한 수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제 언어 생활에서 구체화된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문장의 의미를 표현하는 수단들간의 상호관계가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И холодно же там!”에서 매체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특징에 대한 감탄의 의미는 ‘и’와 ‘же’, 그리고 ‘무인칭 구문’이라는 어휘-통사구조가 주도적 역할을 하여 표현한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의 억양의 역할은 줄어들게 되어 다양한 타입의 억양 구조로 발음을 할지라도 문장의 진술적 의미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이번에는 매체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특징에 대한 단순 진술을 표현하는 “Холодно там.”이라는 문장을 살펴보자. 이 문장에서는 동일한 어휘-통사구조의 문장이라도 여러 가지 억양 구조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단순 진술, 감탄, 질문이 표현될 수 있다.<sup>4)</sup>

- 2) 의사전달유형과 вариативный ряд의 개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Брызгунова(1977)와 Брызгунова(1982) 등의 저서를 참조할 것.
- 3) 레지스터(регистр)라는 용어는 학자별로 서로 다른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신분, 나이, 친분정도(가족관계 포함), 성별에 의해 규정되는,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
- 4) 본 논문에서 억양 구조의 타입(тип интонационной конструкции: ИК)이란 기본어조와 강도, 음색, 장단의 상호관계를 일컫는 말로 쓰인다. 러시아어에는 현재까지 일곱 가지 타입의 억양구조가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의 ИК는 중앙(центр), 즉 역점이 오는 음절(Ударный слог)을 가지고 있고, 상승어조 내지 하강어조로의 기본어조 변

- 1) — Холодно там. — 진술  
 2) — Холодно там! — 감탄  
 3) — Холодно там? — 질문

본 논문에서는 문장 러시아어의 위와 같은 특질을 고려하여, 의미파악의 경우 어휘와 통사구조, 억양 등의 언어 수단과 더불어, 문장의 문맥적 의미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를 필수적인 것으로 보는 커뮤니케이션 분석(коммуни-

화는 꼭 이 중양을 기점으로 일어난다. НК-1에서는 하강어조가 중양의 모음에서 중양 이전보다 더 낮게 발생된다. НК-2는 중양의 모음에서 단어의 역점이 더 강해지면서 하강어조로 발생되고, НК-3은 중양의 모음에서 상승어조가 중양 이전보다 더 높아진다. НК-4는 상승어조가 중양의 모음에서 중양 이전의 어조보다 낮아지고 중양 이후의 어조는 중양 이전보다 높게 발생된다. НК-5는 두 개의 중양을 가지고 있는데, 첫 중양에서는 상승어조로 발생되고, 두 번째 중양에서는 하강어조가 중양 이전보다 높게 발생된다. НК-6은 중양의 모음에서 상승어조가 중양 이전보다 높게 발생되는데 중양 이후의 어조도 계속해서 중양 이전보다 높다. НК-7은 중양의 모음에서 상승어조가 중양 이전보다 높아지고 모음을 발음하는 끝 부분에서 목젓이 닫히며 발생된다. 각각의 НК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НК-1: Он <sup>1</sup>здесь живет.  
 НК-2: Где он <sup>2</sup>живет?  
 НК-3: Он <sup>3</sup>здесь живет?  
 НК-4: А Наташа <sup>4</sup>где?  
 НК-5: Какая <sup>5</sup>сегодня погода!  
 НК-6: Погода <sup>6</sup>сегодня!  
 НК-7: Какой <sup>7</sup>там ресторан!

러시아어의 억양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E. A. Брызгунова(1977)을 참조할 수 있다. 여기서는 러시아어 억양을 기록(транскрипция)하는 방법만을 간단히 서술하겠다. 억양구조의 타입은 1, 2, 3과 같이 숫자로 나타내고 그 숫자가 놓인 자리가 центр이다. 가령, 위의 예에서 "Он здесь живет."라는 문장에 1이 놓여 있는 것은 'здесь'의 'е'라는 중양의 모음에서 하강 어조가 그 앞의 어조보다 더 낮게 발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кативный анализ)을 접근방법으로 채택하여 의사전달유형 '부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브리즈구노바(Брызгунова, 1977 / 1982 참조)에 의해 정착된 이 방법은 억양이나 문맥에 대한 고려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어휘-통사구조의 잠재적 의미가 어떻게 현실화되는가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 적절하다. 즉, 커뮤니케이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위에서 이미 제기한 바 있었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1) 주어진 문장에서 어휘-통사구조가 과연 어떠한 잠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2) 실제 언어생활에서 그 잠재적 의미는 어떠한 언어 수단의 도움으로 발현되는가?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의지표명과 의사전달유형 부탁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커뮤니케이션 분석을 통해 부탁의 вариативный ряд에 속하는 구조를 나누어 그 구조의 언어수단들간의 상호관계, 의미상 누앙스의 문제, 그리고 그 구문들이 쓰이는 담화 범위나 레지스터의 문제를 다루어 보려한다.

## 1. 의지표명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의사전달유형 부탁에 대한 관심은 화용론이나 의미론을 중심으로 점점 늘어나서 현재 다양한 학파에 속하는 러시아의 학자들이 서로 다른 방향성과 접근방법, 또 연구과제를 설정하여 이 주제에 접근하고 있다.<sup>5)</sup> 러시아 언어학에서 의지표명에 대한 연구는 아주 오래 전에 시작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 방법으로 지속되었다. 19세기에 이미 보스톡(A. X. Восток)이나 그레치(И. И. Греч) 등은 명령문(побудительное предложение)을 하나의 독자적인 형태로 분리하여 살폈던 것이다.<sup>6)</sup> 그들의 논문을 살펴보면 의지표명을 명령법(пове-

5) 이 주제에 대한 접근 방법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화행이론이다. J. L. Austin (1962) 이나 J. R. Searle(1969 / 1975), Z. Vendler(1976) 등의 연구 논문 자체도 의사전달 유형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뿐더러, 이들의 화행이론은 러시아내의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현대 러시아 언어학자들 중 많은 이들이 사실상 화행이론의 전문용어를 받아들였고, 또 러시아어를 대상으로 이론을 자기화하여 심화시켰다. 대표적인 예로는 Н. Д. Арутюнова(1981 / 1988), М. Я. Гловинская(1992 / 1993), Т. Г. Винокур(1993), В. Г. Гак(1987), Т. В. Шмелева(1981 / 1990)를 들 수 있다.

лительное наклонение)과 관련시켜 바라보는 형태론적 접근방법(морфологический подход)이 주로 나타난다. 형태론적 접근 방법은 이후 빼쉬코프스끼(A. M. Пешковский),<sup>7)</sup> 이스뜨리나(Е. С. Истрина)<sup>8)</sup> 등에 의해 이어진다. 예를 들어 빼쉬코프스끼는 일차적으로 изъявительное наклонение와 косвенные наклонения를 나누고 повелительное наклонение를 후자에 포함시켰는데 무엇보다도 동사의 형태상의 특질에 의해 법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sup>9)</sup>

한편, 악사코프(К. С. Аксаков)는 부슬라예프(Ф. И. Буслаев)의 Историческая грамматика를 비판하면서 형태론적 법(морфологическое наклонение)과 통사론적 법(синтаксическое наклонение)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sup>10)</sup> 악사코프의 이러한 주장은 이후 샤흐마토프(A. A. Шахматов)<sup>11)</sup>나 라스뽀뽀프(И. П. Распопов)<sup>12)</sup> 등에 의해 심화 발전된다. 예를 들어 라스뽀뽀프는 형태론적 법으로 изъявительное, повелительное, сослагательное наклонение를 나누면서 동시에 통사론적 법을 구분하여 평서법(повествовательное наклонение), 의문법(вопросительное наклонение), 명령법(повелительное наклонение)으로 세분하였는데,<sup>13)</sup> 통사론적 법의 명칭을 보면 그것들이 단순하게 동사의 형태만 아니라 문장의 의미 그 자체까지 고려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비록 라스뽀뽀프 자신은 그것들을 '법'이라 부르고 있지만 사실상 의사전달유형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라스뽀뽀프는 샤흐마토프와 마찬가지로 의사전달과제와 그 표현수단의 개념을 구분하여, 의지표명을 표현하는 수단에 동사의 한 형태로서의 명령법(형태론적 방법)뿐만 아니라 소사(частица)나 동사의 상, 어순 등의 다른 언어방법 또한 포함시킨다. 비록 의미를 형성할 때 언어수단 간의 상호관계나 일련의 구조를 구분하는 문제, 더 나아가 그 구조의 뉘앙스나 레지스터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러한 제반 문제는 당시로는 전혀 제기조

6) В. В. Виноградов(1972) *Русский язык (грамматическое учение о слове)*, Изд. 2-е, М., с. 458-459.

7) См.: А. М. Пешковский(1956) *Русский синтаксис в научном освещении*, М.

8) См.: *Грамматик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т. 1, изд. АН СССР, 1952.

9) А. М. Пешковский(1956) *Русский синтаксис в научном освещении*, М., с. 105.

10) Виноградов(1972)에서 재인용.

11) См.: А. А. Шахматов(1941) *Синтакси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

12) См.: И. П. Распопов(1957) "К вопросу модальности предложения", в кн.: *Уч. зап. Благовеще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имени М. И. Калинина*, т. 8.

13) См.: И. П. Распопов(1957) с. 195.

차 가능한 것이 아니었으며 현재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결국은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러시아 언어학의 전통에서 비록 그 정도나 방법상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명령법을 의지표명 전달의 주요 수단으로 살펴왔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바로 이 명령법이란 용어의 정의와 그 변화체계(парадигма)에 대한 이견이 언어학자들 사이에 존재해 왔으며 지금까지도 단일한 의견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편에서는 императив를 동사의 명령형(2인칭형)과 동일하게 파악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императив를 동사의 명령형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보아 2인칭 명령형 이외의 다른 형태도 императив의 변화체계에 포함시킨다.<sup>14)</sup> 흐라코프스끼와 볼로진은 또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쌍을 구성하는 여덟 개의 형태를 포함하는 императив의 변화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1-я пара — формы 2 л.: 1) пой (НСВ), спой (СВ); 2) пойте (НСВ), спойте (СВ);

2-я пара — формы совместного действия, точнее, совместного лица: 3) а) споем (СВ), будем петь (НСВ); б) давай споем (СВ), давай (будем) петь (НСВ); 4) а) споемте (СВ), будемте петь (НСВ); б) давайте споем (СВ), давайте (будем/те) петь (НСВ);

3-я пара — формы 3 л.: 5) пусть / пускай (он / она) поет (НСВ) / споет (СВ); 6) пусть / пускай (они) поют (НСВ) / споют (СВ);

4-я пара — формы 1 л. ед. ч.: 7) дай / давай спю (СВ), давай буду петь (НСВ); 8) дайте / давайте спю (СВ), давайте буду петь (НСВ); 7-8) спю (СВ), буду петь (НСВ)"<sup>15)</sup>

그간에 단편적으로만 연구되었던 императив와 의지표명과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연구 분석했다는 데에서 우선적으로 그들의 업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императивные конструкции와 императивная форму를 구분하여 전자를 의사전달유형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들 저서의 목차에 "императивные конструкции с неимперативными глагольными формами"<sup>16)</sup>와 같

14) Императив의 변화체계에 대한 기존 러시아 언어학자들의 견해는 흐라코프스끼(В. С. Храковский)와 볼로진(А. М. Володин)의 공동 저서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 В. С. Храковский, А. П. Володин(1986) *Семантика и типология императива, Русский императив, л.*, с. 118-119를 참조할 것.

15) В. С. Храковский, А. П. Володин(1986) с. 123-124.

16) В. С. Храковский, А. П. Володин(1986)의 목차에 나오는 표현이다. 이 구문은 다시

은 표현이 나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싸첸코(A. В. Исаченко)가 자신의 논문에서 *императив*와 명령법(*повелительное наклонение*)이란 용어를 위와 다른 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명령법은 러시아어에서 *императив*뿐만 아니라 동사의 다른 형태나 동사 이외의 품사들로도 표현될 수 있다”<sup>17)</sup>고 서술하여 명령법을 오히려 넓은 개념의 용어로, 즉 의사전달유형과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용어나 기술상의 이견을 제외한다면 호라코프스끼, 볼로진, 이싸첸코는 다른 러시아의 언어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의사전달유형으로서의 의지표명이 동사 형태의 하나인 *императивная форма*(또는 *повелительное наклонение*)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서로 일치할 하고 있다. 즉, “Стоять!”, “Вы не могли бы передать билет?”와 같이 *инфинитив*나 의문형태로도 충분히(오히려 더 자주) 의지표명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러시아 언어학자들의 논문을 살펴보면 러시아어에서 동사의 명령법(동사의 명령형 2인칭 단수, 복수)이 항상 의지표명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쓰여 있다. 예를 들어 뵘로뜨니코바(B. A. Плотникова)는 “동사의 명령법의 2인칭과 형태상은 일치하지만, 사실상 명령의 의미를 갖지 않고 일정한 통사구조에서만 쓰일 수 있는 형태가 있다”<sup>18)</sup>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인다. “Но никто не знал о тайной беде моей, и, скажи я о ней, никто бы мне не поверил”에서 ‘скажи’는 말을 해달라는 부탁이나 명령의 의미가 아니라 조건이나 가정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고, “Его ждут, а он опоздай на целый час”에서 ‘опоздай’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일반적으로 그다지 원하지 않는 일을 의미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구문은 “동사 명령형의 부차적 기능”<sup>19)</sup>이라 설명되고 있다.

동사 명령형의 의미에 대한 연구 중에 현저히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바로

---

“императивные конструкции с инфинитивом в позиции сказуемого”와 “императивные конструкции с индикативными формами будущего времени СВ и будущего и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НСВ”, “императивные конструкции с формами сослагательного наклонения”, “вопросительные императивные конструкции”로 세분되어 살펴진다.

17) A. В. Исаченко(1957) “К вопросу об императиве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в кн.: *Русский язык в школе*, No. 6, с. 7.

18)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т. 1, Изд. Наука, 1982, с. 625.

19) См.: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т. 1, Изд. Наука, 1982.

그라비에(Гл. Грабье)의 입장이다. 그는 “화자가 동사의 다른 형태가 쓰일 자리에 명령형을 쓸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행위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관계가 표현된다”<sup>20)</sup>고 주장한다. 동사의 명령형을 명령문과 직접적이고도 우선적으로 연결을 시켰던 여러 학자들과 달리, 그라비에는 동사 명령형이 의지표명을 표현할 경우와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 모두에서 가질 수 있는 공통의 의미를 규정하려 시도했던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의지표명을 *императив*와 명확히 구분하여 의사전달과제 내지 의사전달유형으로 파악한다. 또한 *императив*라는 용어도 그 변화체계를 가장 좁게 설정하여 이차첸코와 같이 동사의 명령형 2인칭 단수, 복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볼 때 *императив*는 의사전달과제인 의지표명을 표현할 수 있는 구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즉, 의지표명은 *императив*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앞서 기술했듯이 *императив*는 의지표명 이외에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지만 본 논문의 목적이 의지표명을 표현하는 여러 구문들을 의미적으로, 화용론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것이지 *императив*가 가지는 여러 의미를 알아보자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 2. 부탁에 대한 접근 방법

커뮤니케이션 분석은 브릭즈구노바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심화, 확장되었는데, 의지표명과 관련해서는 베자예바(М. Г. Безяева)의 업적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녀가 제안한 의사전달유형 ‘부탁’의 정의와 그 *вариативный ряд*를 받아들여 그것을 기본으로 러시아어 ‘부탁’ 표현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논문에서 사용할 부탁의 정의는 러시아어에서 부탁을 표현하는 구조들의 *вариативный ря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사실 의사전달유형 ‘부탁’에 대한 기존의 정의를 사용해서 어떠한 구조가 왜 부탁의 *вариативный ряд*에 나타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호라코프스키나 볼로진은 ‘부탁’과 ‘명령’을 구분하는 변수로 “청자와 화자와의 상하관계”<sup>21)</sup>

20) Гл. Грабье(1983) “Семантика русского императива”, в кн.: *Сопоставительное изучение грамматики и лексик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с чешским языком и другими славянскими языками*, М., с. 106.



를 들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부탁'은 화자가 자신을 청자보다 높지 않게 설정하는 데 비해 '명령'은 화자가 자신을 청자보다 높게 설정한다. 그러나 '부탁'과 '명령'에 대한 이러한 구분에는 굳이 언어학적이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수긍을 하기가 어렵다. 실제 우리의 언어생활을 살펴보면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부탁'을 해야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을 뿐더러, 러시아어의 경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요구 내지 명령을 해야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포르마노프스카야(Н. И. Формановская)는 '부탁'과 '명령'을 존대라는 지표로 구분을 하고 있다.<sup>22)</sup> 우리는 존대표현 역시 위의 "화자와 청자의 상호관계"와 똑같은 의미에서 부탁과 명령을 구분하는 지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부탁이라고 항상 정중한 것만은 아니며, 명령도 정중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부탁'의 *вариативный ряд*를 형성할 수 있게 하리라 생각한다.

“부탁이란 화자가 청자에게 그가 할 수 있는, 그러나 의무나 강제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어떠한 행위물, 자신의 희망에 따라 행해줄 것을 바라는 원망의 표현이다.”<sup>23)</sup>

부탁의 이러한 보편적 의미는 표면적 방법(*эксплицитный способ*), 이면적 방법(*имплицитный способ*) 그리고 의사전달의 반복(*коммуникативное дублирование*)으로 표현된다. 표면적 방법이란 의사전달과제(*коммуникативное задание*) 그 자체나 구성요소를 어휘적으로 밝히는 구조를 말하며, 이면적 방법은 의사전달과제가 표면화되지 않고 언어수단들의 상호작용의 역할이 강화되는 구조를 뜻한다.

### 3. 부탁의 표면적 표현 방법

우선 부탁 표현의 '표면적 방법'을 살펴보자. 위에서 주어진 정의로 보면 의

21) В. С. Храковский, А. П. Володин(1986) с. 137.

22) Н. И. Формановская(1984) *Употребление русского речевого этикета*, Изд. 2-е, М.를 참조할 것.

23) М. Г. Безяева(1996) с. 209-210.

사전달과제의 명칭 그 자체(просьба)나 '할 수 있다(может) — 해야만 하다(должен)'의 상대개념, 또는 청자나 화자의 원망이라는 의사전달 구성요소 등이 부탁 표현 구문에 반영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просить, мочь, хотеть의 동사를 포함하는 구문이 그것이다. 구체적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밝힐 것은 러시아어에서 이 구문들의 쓰임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 3.1. 의사전달유형을 직접 명명하는 구문

먼저 просить 구문은 러시아어가 의사전달과제의 표면화를 얼마나 기피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즉, 러시아어에서는 의사전달과제 부탁을 직접 명명하고 있는 동사 просить가 쓰였다고 해서 그것이 부탁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며, 혹 부탁이 전달되더라도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나 가능하다. 예를 들어 1) 'прошу + инфинитив глагола каузируемого действия СВ + ИК-1 / ИК-2' 구문은 상당히 높은 장르의 대화, 특히 공식적인 상황에서만 부탁을 전달할 수 있다.

а) Утром она оставила на столе записку для Вариной классной руководительницы: «Прошу отпустить Варю Иванову после третьего урока по домашним обстоятельствам.» (А. Н. Рыбаков, «Дети Арбата»)

б) — Говорите, Полужан!  
— Все случившееся я считаю большой ошибкой, — начала Роза.  
— Ошибки бывают разные!...  
— Я это считаю груб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ошибкой. Я только прошу принять  
во внимание, / что я предлагала написать передовую.  
(А. Н. Рыбаков, «Дети Арбата»)

예문 a)는 학생을 일찍 귀가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공식적이 서한이고 예문 b)는 벽보 사건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어 일종의 자기 비판과 함께 당의 정책을 받는 상황에 놓인 로자가 자신이 선전문구를 써야한다고 주장했음을 고려해 달라는 공식적인 부탁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부탁을 표현하고는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Вы не отпустите Варю Иванову после третьего урока по домашним обстоятельствам?”이나 “Вы уж примите во внимание, что я предлагала написать передовую.”를 대신 사용한다면 공식성이 없어져서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된다.

앞서 밝혔듯이 러시아어에서 'прошу 구문'은 공식적인 부탁을 하고자 할 때조차도 쓰임을 제한 받는다. 만약에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아래와 같이 말을 한다면, 부하직원은 이를 부탁보다는 명령이나 차가운 관계가 강조된 표현 정도로 들을 것이다. 왜냐하면 러시아어 모국어 사용자는 아래 예문에서 '의무나 강제가 아니라 너의 희망에 따라 행위를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해야 한다'는 명령에 가까운 뉘앙스를 느끼기 때문이다.

- a) — Прошу подготовить документы ко вторнику.  
 б) — Прошу перепечатать к двум часам.

재미있는 것은 이 구문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될 때도 함축되어 있던 명령적 의미가 훨씬 더 강해져서 부탁이 아닌 날카롭고 격양된 명령(раздраженное требование)을 표현한다는 사실이다.

- a) — Ты что расселась, как у себя дома? — недовольно спросил Один.  
 — А я у себя дома, — сказала Ирка. — Теперь это мой дом. Другой — мой муж. А ты — наш друг.  
 — Я прошу тебя объяснить свое поведение! — потребовал Один.  
 (В. Токарева, «Глубокие родственники»)

б) (Телефонный звонок)

- Да. Все? В таком случае я повторяю. Прошу мне больше не звонить.  
 (х/ф «Москва слезам не верит»)

예문 a)에서는 집을 나간 부인이 다른 남자(другой)와 함께 있으면서 그가 자신의 남편이고 그 남자와 함께 있는 곳이 자신의 집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남편(Один)이 부인에게 'прошу 구문'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히 분노에 찬 명령이지 정중한 부탁은 아닌 것이다. 작가도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기에 "попросил Один."이라고 하지 않고 "потребовал Один."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예문 б)도 임신한 자신을 버렸던 남자가 20년이 지난 후에야 딸을 만나게 해달라며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오는 상황에 쓰인 말이다. 두 예문이 모두 공식적인 상황이 아닌 일상대화에 속하는데, 이렇게 일상에서 필요 이상의 정중함은 예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사전달유형 자체를 바꾸어 놓게 된다.

이러한 까닭에 'прошу + инфинитив глагола каузируемого действия СВ + ИК-1 / ИК-2' 구문은 러시아어를 배울 때 많은 외국인이 실수를 하는 예 중의 하나가 된다. 즉, 이 구문의 장르와 레지스터상의 특징을 모르는 외국인으로서 일상적인 부탁을 하고자 할 때,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아래와 같은, 실제로는 부탁이 아닌 명령이나 화가 난 명령을 나타내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것이다.

- а) — (В автобусе) \*Прошу передать билет.  
 б) — (В ресторане) \*Прошу принести второе.

다른 한편으로 2) 'прошу + глагол каузируемого действия СВ в императивной форме 2-го лица + двусинтагменное оформление' 구문은 위의 구문 1)과는 달리, '애원'이나 '간청(мольба)'의 보조적 의미가 가미된 '부탁(просьба)'을 전달한다. 즉, 이 구문은 화자가 이미 거절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래도 청자의 행위 이행이 자신(화자)의 이해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임무를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따라서 이 구분에는 'очень', 'только', 'ради бога' 등 '중요성'을 강조하는 어휘요소들이 자주 병행한다.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애원이나 간청의 뉘앙스가 ИК-2일 경우 — 물론 ИК-3 에서도 그 의미는 남아있지만 —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 а) — Я вас <sup>2</sup>очень прошу: / <sup>3</sup>дайте нам пальто, пожалуйста. Я больше не могу... — тихо пожаловалась Лариса. (В. Токарева, «Плохое настроение»)  
 б) — <sup>2</sup>Только прошу вас, / — <sup>3</sup>сказал старик Нелли, — не обмолвитесь моему сыну, что я послал это письмо. Он в ладах с сестрой.  
 (А. Н. Рыбаков, «Дети Арбата»)

예문 a)는 극장에서 옷을 벗어 맡기고 받은 번호표를 잃어버린 라리사가 영화가 끝나기 전에 나와 직원에게 번호표 값을 배상하겠으니 옷을 돌려달라고 사정을 하는 대목이다. 라리사는 이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옷을 돌려달라고 부탁을 했었으나 직원은 그게 당신의 옷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느냐며 박무가내인 상태였고 드디어 라리사는 또 거절당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간청에 가깝게 옷을 돌려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Я больше не могу."라는 표현이 절실함을 더해준다. 예문 b)에서도 외국인에게 시집을 간 딸과 자

신이 서로 연락을 취한다는 사실을 KGB 직원인 아들이 알아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지가 어려운 일이겠지만 아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노인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러시아어에서 동사 'просить'가 쓰인 구문은 의사전달유형 부탁을 전달할 때보다 오히려 다른 의사전달유형(이미 살펴보았듯이 '명령'이나 '애원' 등)을 표현할 때 훨씬 더 자주 쓰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는 러시아어를 배우는 외국인에게 하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부탁 표현의 표면적 방법에는 '동사형 구문'뿐만 아니라 '명사 표면화 구문'도 있다. 3) 'просьба + инфинитив глагола к.д.(каузируемого действия) СВ'와 4) 'просьба + глагол к.д. СВ в императивной форме 2-го лица'가 여기에 속하는데, 이 두 구문은 의미와 쓰임 범위가 확연하게 다르다. 우선 구문 3)은 부탁(просьба)이 아닌 공식 명령(официальное требование)을 표현하며 구어든 문어든 구애받지 않고 행정공고(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е объявление)에 주로 쓰인다.

- а) Поезд дальше не идет. / <sup>1</sup> Просьба освободить вагоны.<sup>1</sup>  
 б) Просьба соблюдать тишину.

а)는 종착역에 도착했으나 지하철에서 모두 내리라는 지하철 안내 방송이고 б)는 도서관이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지판이다. 둘 다에서 청자는 원하던 원하지 않든 주어진 요구에 따라야 한다. 청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이 구문은 부탁이라기보다는 정중한 명령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와 달리 구문 4)는 화자가 청자에게 허물없이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주로 쓰인다. 즉, 3)구문이 공식적인 장르에 해당하는 데 비해 4)구문은 그와는 반대로 화자와 청자가 가까운 사이이거나, 적어도 그런 상황을 연출하려 할 때 사용되며, 또한 3)구문이 명령을 표현하는 반면, 4)구문은 부탁을 나타내는 것이다.

- а) — У меня к вам <sup>1</sup> просьба, / — сказала Мария Федоровна, — <sup>3</sup> разыщите  
в Кежме Елизавету Петровну Самсонову, / она такая же старушка, / как и <sup>3</sup>  
<sup>1</sup> я. / Передайте ей вот это. (А. Н. Рыбаков, «Дети Арбата»)

б) У меня <sup>1</sup>просьба, / <sup>3</sup>принеси учебник, / У меня завтра <sup>1</sup>экзамен.

보다시피 a)와 б) 모두에서 부탁의 내용이 허물이 없다. 친구에게 교과서 좀 빌려달라는 б)는 말할 것도 없고 a) 역시 유배지에서 서로 동병상련을 느끼는 사람들끼리, 그것도 나이를 먹은 할머니가 아직 20살이 채 안된 젊은이에게 하는 부탁이니 부탁 행위의 어려움이나 공식성 등은 없다고 보여진다.

### 3.2. 화자나 청자의 원망을 표면화하는 구문

러시아어에서는 '부탁'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 의사전달유형을 직접 명명하는 구문과 마찬가지로 화자의 원망 또는 청자의 원망을 표면화하는 구문 역시 쓰임을 제한 받는다.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러시아어에서 동사 'хотеть'가 쓰인 구문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사용되거나, 혹은 전혀 다른 의사전달유형을 표현한다.

가령, 부탁을 전달하는 구문 중에 화자 원망 표면화는 'хотеть в 1-ом лице обычно ед. числа + попросить(가끔 просить) + глагола к.д. СВ'의 구문에서와 같이 상당히 예외바른 표현에서나 쓰인다.

а) — Я хочу вас попросить ... денег, если можете. Немного ... десять рублей, больше не надо. (Ф. М. Достоевский,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б) — Я хочу попросить вас перенести рейс на 30-ое мая.

청자의 원망에 대한 고려를 표면화하는 구문은 러시아어에서 일반적인 부탁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다. 만약 나이가 지긋한 아주머니가 젊은 남자에게 지하철에서 "Вы не хотите поставить чемодан на верхнюю полку?"라고 말한다면, 이는 그저 평범한 부탁(нейтральная просьба)이라기보다는 부탁-상기(просьба-напоминание) 내지 부탁-질책(просьба-упрек)<sup>24)</sup>에 해당될 것이다. 또한 이 구문은 발화상황에 따라 상기나 질책이 보다 강조된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딸에게 "Ты не хочешь сходить в магазин?"이라고 했을 경우, 상기의 뜻이 강해지며, 대학 복도에서 지도교수가 학생에게 "Вы не хотите сдать мне курсовую?"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왜 학년논문

24) "스스로 알아차릴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뜻이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을 내지 않느냐?”란 질책의 뜻이 부탁의 의미보다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러시아어에서 화자나 청자의 원망을 표면화한 구문은 의사전달유형 부탁을 표현할 때 그 쓰임을 제한 받는다. 부탁의 표면적 방법 중 널리 사용되는 것은 청자의 행위 수행 가능성을 강조한, 동사 'мочь'가 쓰인 구문들이다. 이 구문들은 언어수단의 상호관계에 따라 다양한 범위에서 쓰인다.

가장 덜 쓰이는, 그러나 가장 예의바른 표현인 구문은 'не + глагол мочь в форме 2-го лица мн. числа(가끔 ед. числа) наст. времени + ли + инфинитив глагола к.д. СВ + ИК-2 (ИК-4, ИК-5)'이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러시아어에서 부정소사 'не'의 쓰임은 다른 부탁 구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표현 방법에서도 일반적이지만, 소사 'ли'의 쓰임은 이 구문을 상당히 예외적이고 높은 장르로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물론 ли를 생략해도 충분히 정중하기는 하지만 ли가 쓰였을 때보다는 그 정도가 떨어진다. 이 구문이 정중한 표현이라는 것은 (위에서 '가끔'이라 밝혀 쓰고 있듯이) ты와는 거의 결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а) Листопаду позвонил Макаров, секретарь горкома:

— Александр Игнатьевич, / <sup>2</sup>не можете ли <sup>2</sup>заехать на минутку, / <sup>2</sup>очень нужно. (В. Панова, «Кружилиха»)

б) (В библиотеке)

— <sup>3</sup>Не можете ли вы / <sup>1</sup>продлить мне эту книгу?

이번에는 역시 충분히 예의바른 표현 중의 하나이지만, 위보다는 조금 더 널리 쓰이는 'вы/ты + не + глагол мочь в форме мн. числа(단수형도 가능) сослагательного наклонения + инфинитив глагола к.д. СВ + ИК-3 с центром на мочь'에 대해 알아보자. 이 구문과 관련해서는 우선 인칭 대명사와 의문소사 'не'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두 단어가 없을 경우, ИК-3의 상호작용에 의해 부탁-의문(просьба-вопрос)을, ИК-2 와 함께 일반적으로 질책(упрек)을 표현하기 때문이다.<sup>25)</sup>

а) — Ты не мог бы <sup>3</sup>помочь дедушке? (просьба)

25) 만약 'и'가 첨가된다면 질책의 의미가 보다 확실히 나타난다.

— Мог бы и помочь дедушке.

- б) — <sup>3</sup>Мог бы помочь дедушке? (просьба-вопрос)  
 в) — <sup>2</sup>Мог бы помочь дедушке. (упрек)

러시아의 부탁은 구문 'вы/ты + не + можете/можешь + глагол к.д. СВ + ИК-3 с центром на мочь'에 의해서도 전달된다. 이 구문은 부탁 표현 중 예절 바르면서도 널리 사용되는 방법중의 하나이다.

- а) 2-я подруга. Вы правда будете драться с ним?

3-я подруга. Господин Ланцелот, <sup>3</sup>вы не можете устроить нас на крышку ратуши? Вам не откажут, если вы попросите. (Е. Шварц, «Дракон»)

- б) — <sup>3</sup>А вы не можете у нас остаться? — / спросила она, и опять слезы потекли у нее по щекам. — / Совестно вас беспокоить, но будьте так добры... ради бога, — продолжала она, оглядываясь на дверь, — переночуйте у нас. (А. П. Чехов, «Случай из практики»)

여기에서는 특히 부정사의 상에 유의해야 한다. 즉, 부탁의 표현에서는 일반적으로 완료상의 부정사가 오고, 만약 불완료상이 쓰이면 의사전달과제 자체가 바뀌거나 혹은, 의미의 복잡화가 일어나게 된다.

- а) ... Ты не <sup>3</sup>можешь помочь? (просьба)  
 б) — Ты не <sup>3</sup>можешь <sup>(3)</sup>помогать? (догадка)  
 в) ... Ты не <sup>3</sup>можешь покупать побольше? (주로 упрек)  
 г) — Ты не <sup>3</sup>можешь замолчать? (раздраженное требование)

위에서와 같이 НСВ의 부정사가 이 구문에 쓰이면 그 부정사의 의미에 따라 주측이나 질책, 격양된 명령 등의 다양한 의사전달 유형이 표현된다.

동사 мочь가 쓰인 구문에서는 мочь 자체의 상에도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만약 완료상인 смочь가 쓰였다면 그 구문 — 'вы/ты не сможете/сможешь + инфинитив глагола к. д. СВ/НСВ' 와 'вы/ты не могли/мог(-гла) бы + инфинитив глагола к.д. СВ/НСВ' 구문 — 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된다.

“첫째, 수행해야 할 행위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일어난다. 둘째, 행위



수행에 어려움이나 장애가 있다. 때문에 화자는 청자의 어떠한 결정에도 받아들일 자세, 나아가 설령 그것이 거절이라 할지라도 승복할 각오를 하고 있다.”<sup>26)</sup> 이러한 뉘앙스는 ‘никак’을 첨가함으로써 더 강하게 나타난다.

- а) — Ты никак не сможешь <sup>3</sup> заехать завтра?  
 б) — Ты никак не сможешь <sup>3</sup> перезвонить через час?

사실 이 구문은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завтра와 через час 같은 단어를 써서 행위 수행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일어난다는 사실을 어휘적으로 표면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 구문을 “Вас не затруднит <sup>3</sup> перезвонить через час?” 와 같이 비록 행위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고려한다는 뜻을 겉으로 표면화했지만 사실은 상당히 집요한 부탁을 표현하는 구문과 비교해 보면 위의 뉘앙스가 확실해진다. 청자의 거절조차 수용할 각오가 되어있다는 뉘앙스는 이 구문이 간청(мольба)이나 재부탁(упрашивание)에 쓰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대화는 어법상 맞지 않는 것이 된다.

- а) — Мне надо взять книгу. Сходи в библиотеку, пожалуйста.  
 — Я не могу. Очень занята.  
 б) — (??)Ты никак не сможешь <sup>3</sup> сходить в библиотеку?

여기에서는 상대가 이미 거부한 행위를 재차 부탁하는 경우이므로 재부탁에 많이 쓰이는 “Сходил бы ты в библиотеку.”를 써야 상황에 맞는 표현이 되는 것이다.(이 구문에 대해서는 뒤에 논하겠다.)

의사전달유형 ‘부탁’은 당연히 존대표현과 깊은 관계가 있다. 러시아어에서는 우선 존대표현을 어휘적으로 표면화하는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문의 쓰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존대표현 어휘인 ‘пожалуйста’는 의지표현구문 중 동사의 명령형(императив)과만 결합이 가능하다.<sup>27)</sup> 이는 러시아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같은 인도유럽

26) М. Г. Безьева(1998) “Вариативный ряд конструкции русской просьбы”, в кн.: Вестник МГУ, Сер. 9, No. 1, с. 63.

27) ‘пожалуйста’가 동사의 명령형과만 결합한다는 말은 화자가 청자에게 대답이든 행

어족에 속하는 영어와 비교해 보아도 이 특징이 뚜렷이 나타난다. "What time is it now, please?"나 "Could you open the door, please?"가 정중한 질문이나 정중한 부탁을 나타내는데 비해 러시아어에서 пожалуйста는 의문형태와 — 실제로 의문을 표현하든, 의지표현을 전달하든 — 결합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Который час, пожалуйста?", "\*Ты не мог бы открыть дверь, пожалуйста?"와 같은 문장이 불가능한 것이다. 러시아어에서 질문을 할 때 정중하기 위해서는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который час?"와 같이 명령형의 의지표현구문과 결합해야만 한다.<sup>28)</sup>

이와 더불어 존대표현 수단이 반드시 발화시 실제로 정중한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란 점을 강조한다. 게다가 더 나아가 존대표현의 어휘수단이 쓰인 의지표현구문이 정중한 부탁이 아닌, 오히려 화가 난 명령(раздраженное требование)을 전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будь/-те добр/-а/-ы'나 'будь/-те любезен/-зна/-ны'가 쓰인 구문을 예로 살펴보자.

만약 이 구문을 동사의 명령형(императив)과 함께 써서 ИК-3으로 발성한다면, 주로 사회적 지위나 나이의 차이를 갖는 대화상대자끼리의 상당히 예의 있고 정중한 부탁이 표현된다.

а) — <sup>3</sup>Будьте добры, / <sup>3</sup>объясните: / <sup>2</sup>Что здесь происходит? Почему народу так много, что за причина его волнения и почему закрыты городские ворота?  
(Ю. Олеша, «Три толстяка»)

б) — <sup>3</sup>Будьте добры, / <sup>3</sup>пройдите вперед, чтобы все могли вас слышать.  
(Т. Уайлдер, «Нам городок»)

예문 a)는 사회적 지휘와 명망을 갖는 의사 할아버지 가스빠르 박사가 길에서 낯선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고 물어 보는 상황이고 b)는 자기의 의견을 청중들 앞에서 큰소리로 이야기하는 연사에게 청중 중에 한 명이 조금 앞으로 나와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다. 즉, 청자와 화자가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이도 아니고 서로 나이나 사회적 지위에 차이가 있지만, 그

위든 어떠한 반응을 요구하는 말을 할 때에 해당하는 것이지 ответные реплики에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28) 러시아어 의문문에서 존대표현의 제한성은 듣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어말 어미를 구사하는 한국어와 비교할 때 더욱 극명해진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와의 비교를 주된 내용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려한다.

렇다고 한 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구문을 동사의 부정사형과 결합하면 전혀 다른 의사전달과제가 표현된다. 부정사형이 쓰인 구문을 만약 ИК-3으로 발성하면 '정중한 명령(вежливое требование)'을, ИК-2로 발성하면 '화가 난 명령(раздраженное требование)'을 표현할 수 있다.

a) — <sup>3</sup> Будьте любезны перепечатать.

b) — Будьте любезны покинуть аудиторию.<sup>2</sup>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다시 타이핑할 것을 요구하는 a)를 러시아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상사가 업무적인 일을 이렇게 공손하게 부탁하다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같은 상황에서 이 구문은 역시 정중한 명령을 표현할 수 있는 'прошу + инфинитив' 구문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b)는 화자에게 필요한, 또는 사용할 권리가 주어진 강의실을 타인이 강의실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 예를 들면 쉬는 시간인데 담배를 피고 있다든지, 이미 수업이 시작되었는데도 수강생도 아니면서 나갈 생각을 안하고 떠들고 있다든지 — 점령하고 있어 화자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에 쓰이는 문장이다. 만약 이 표현을 'будьте любезны'와 같은 예의바른 표현이 어휘적으로 쓰였다고 해서 위와 같이 극단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강의실을 비워달라고 부탁할 때 사용한다면 커다란 실수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탁 표현의 표면적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러시아어가 부탁을 표현할 때, 의사전달유형 자체나 그 구성요소를 표면적으로 밝히는 방법을 기피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전혀 다른 의사전달유형을 나타내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정중한 표현을 어휘적으로 명시하는 경우 역시 제한을 받거나, 쓰이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정 반대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점들은 러시아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외국인을 위한 러시아어 수업에 활용되어질 수 있겠다.

#### 4. 부탁의 이면적 표현방법

그러면, 이제 의사전달과제(коммуникативное задание)나 그 구성요소(ком-

муникативные составляющие)를 어휘적으로 표면화하지 않고, 다양한 언어수단의 상호작용에 의해 그 의사전달과제를 표현하는 구문에 대해 알아보자. 이 구문은 어휘-통사구문의 잠재적 다의성(потенциальная многозначность)과 언어수단 상호작용의 활성화를 특징으로 한다. 즉, 하나의 어휘-통사 구조가 잠재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뜻은 어휘, 통사, 억양, 문맥 등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현되는 것이다. 구체적 고찰에 들어가기 전, 미리 밝혀둘 것은 바로 이러한 구문들이 러시아어에서 부탁을 표현할 때, 특히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점이다.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이면적 방법 중 하나가 일반적인 부탁을 표현하는 'глагол к. д. СВ в императивной форме 2-го лица + ИК-3' 구문이다.

а) — А когда она ушла?

— Не знаю. Я проснулся, ее нет. Позвони ей, пожалуйста, / и скажи:  
«Галля, ты сломала Вячику крылья. Он сдался. Делай с ним что хочешь, он на все согласен. Только вернись.» (В. Токарева, «Ехал греха»)

б) — Сашка, — говорю, — зайди в деканат, / скажи, что меня неделю не будет.  
(В. Токарева, «Будет другое лето»)

재미있는 것은 동일한 구문이 전혀 다른 의사전달과제인 명령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어에서 이러한 경우 의사전달유형 부탁과 명령은 억양 구조 타입(тип ИК)에 의해 변별된다. 부탁은 ИК-3의 상호작용에 힘입어 전달되며, 명령은 ИК-2가 필요하다.<sup>29)</sup> Imperativ가 ИК-2와 결합했을 경우, 'пожалуйста'를 삽입할지라도 의사전달과제는 변화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어에서 пожалуйста는 그 표현을 정중하게 해 줄 뿐 의사전달과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는 영어의 "It is cold now, please."가 단순히 춥다는 표현을 넘어 문을 닫으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현상으로 러시아어에서는 위의 예문을 만약 ИК-2로 발음하면 동일한 어휘-통사구조일지라도 명령이 전달된다. 특히, а) 예문에서는 공손함을 표면화하는 'пожалуйста'가 쓰였지만 그 때에도 ИК-2로 발성하면 부탁이 아닌 명령이 표현된다.

29) ИК-2와 ИК-3의 대비에 대해서는 브리즈구노바(Е. А. Брызгунова)의 '외국인을 위한 러시아어'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되었으며 그녀의 저서에도 여러 가지 예시가 나와있다. 러시아어 억양구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Брызгунова(1977), Брызгунова(1988) 등과 문성원(1994)을 참조할 것.

а) — <sup>2</sup>Отойдите все в сторону, — приказала Татьяна.  
(В. Токарева, «Летающие качели»)

б) — <sup>2</sup>Раздевайся!  
— Зачем? — спросила Танька и стала расстегивать кофточку.  
— Наголо? — поинтересовалась Вероника.  
— И ты тоже! <sup>2</sup>Раздевайся! (В. Токарева, «Неромантичный человек»)

마찬가지로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명령을 표현하는 императив의 경우에도 만약 화자가 ИК-3으로 발성을 바꾼다면 의사전달유형도 바뀌어져 부탁이 표현된다. 사실 톤을 높였다가 갑자기 정상화시켜야 하는 ИК-3의 경우, 많은 외국인이 실행하기 어려워하는 억양구조 타입인데, 한국인 역시 예외는 아니다. “외국인들은 부탁하지 않고 명령만 한다.”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을 정도이다. 러시아어를 처음 배울 때 그들이 ИК-3 대신 ИК-2를 실행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창문 좀 열어 줘.(Открой окно.)”라는 화자의 의도와는 달리 청자는 “창문 열어!(Открой окно.)”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이 러시아어를 배울 경우, 똑같은 구문이 억양에 의해 정반대의 의사전달과제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숙지, 그 발성법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다음은 러시아어에서 부탁을 표현하는 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 중의 하나인 ‘личное местоимение 2-го лица + не + глагол к.д. СВ буд. вр. + ИК-3 с центром на глаголе’ 구문을 살펴보자. 이 구문은 러시아어에서 императив보다 부드러운 뉘앙스를 가진 부탁을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можешь и не делать”라는 의미가 약화되어 들어있기 때문이다.<sup>30)</sup> ‘나는 이렇게 부탁을 하고 너는 안 해 줄 수도 있지만 나는 네가 해줄 거라고 거의 믿고 있어’라는 숨은 뜻은 이 구문의 쓰임을 일상적인 평범한 부탁표현으로 제한한다. 즉, 무엇인가 어려운 행위에 대한 부탁, 또는 반복적 부탁(повторная каузация), 간청(мольба)에는 이 구문을 사용할 수 없다.

а) — <sup>3</sup>Вы не дадите мне жетон? В долг? У меня прервалось...  
(В. Токарева, «Груда камней голубых»)

30) М. Г. Безяева(1998) с. 70.

б) (Мама обращает к дочери:)

3  
— Ты не сходишь в магазин?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점은 부정 소사 'не'의 쓰임이 필수라는 것이다. 'не'가 없는 구문은 러시아어에서 부탁보다는 전형적인 질문에 가까워진다. 즉, "Вы не дадите мне житон?"이 '토론 하나만 빌려주시겠어요?'로 해석된다면, "Вы дадите мне житон?"의 경우는 '제게 토론 주실 거예요?' 정도로 옮겨져야 적당하다.

러시아 부탁 표현 방법 중 'глагол к.д. СВ в сослагательном наклонении + ИК-3 с центром на глаголе' 구문이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끈다. 우리말에 이와 비슷한 형태의 구문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 또한 한국어 부탁구문에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sup>31)</sup>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은 이 구문을 이용할 때 "자기 부탁이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과, 거절의 이유가 부탁의 수행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청자에게 강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거나 청자가 부탁을 들어줄 마음이 없기 때문"<sup>32)</sup>이라는 것을 미리 추측하고 있다. 이는 'вы/ты не сможете/сможешь + инфинитив глагола к.д. СВ/НСВ' 구문과 의미상의 대비를 이루고 있어 흥미롭다. 두 구문 모두 화자가 미리 거절의 가능성을 알고 있다는 데는 공통되나, 후자가 부탁 수행이 어렵게 때문에 그 거절을 받아들일 각오까지 하고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반해, 전자는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청자가 부탁을 들어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생긴 거절이므로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뿐더러, 더 나아가 계속해서 부탁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한다는 차이를 갖는다. 다시 말해, 'глагол к.д. СВ в сослагательном наклонении + ИК-3 с центром на глаголе' 구문은 러시아어에서 반복부탁(повторная просьба)이나 간청(мольба) 표현의 전형적인 예이다. 그것은 이 구문이 "당면한 어려움이나 다른 장애에도 불구하고 나나 제 3자를 위해서 이 일을 해달라"<sup>33)</sup>는 숨은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 이 점에서 'можешь и не делать'라는 뉘앙스를 가지는 'личное местоимение 2-го лица + не + глагол к.д. СВ буд. вр. + ИК-3 с центром на глаголе' 구문

31) 물론 그 의미를 굳이 서술로 풀어쓰면 가능하겠으나, 이는 어떤 언어에서나 가능한 경우이므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구문이 특정의미를 전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32) М. Г. Безяева(1998) с. 72.

33) М. Г. Безяева(1998) с. 72.

과도 좋은 대비를 이룬다. 즉, 후자가 부탁을 꼭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절 수용성을 내포하고 있어 반복적 부탁에 쓰일 수 없는 것에 비해 전자는 거절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행위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이므로 그 거절을 수용할 생각이 없고 계속해서 부탁을 할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а) — Мне только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а там поезд. Документы есть. А вот здесь без ружья... здесь худо. Продай, а?

— Нет, даже не упрасивай.

— Я бы теперь новую жизнь начал... <sup>3</sup> Выручил бы ты меня, отец.

(В. Шукшин, «Охота жить»)

도망자가 신부님에게 무기를 팔라고 단순히 부탁하는 수준을 넘어, 신부님이 그렇게만 해주면 자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니 제발 좀 구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위의 예문은 이 구문의 쓰임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앞서 러시아어에서는 한국어와는 달리 존대표현 어휘의 쓰임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존대법 중 하나인 겸양표현(выражение самоуничижения)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구문이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겸양의 뜻을 분별, 어휘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한국어와는 달리, 러시아어에서 겸양의 뜻을 담은 부탁구문은 극히 제한된 일부에 불과하다. 'вы/ты + уж + императив глагола к.д.'와 'мне бы + объект просьбы'가 겸양(самоуничижение)의 뜻을 표현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구문들이 단순히 화자의 겸양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러시아어의 특색 중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가 한 구문에 복합적으로 담겨진다는 것인데 바로 겸양의 뜻을 나타내는 구문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우선 첫 구문 'вы/ты + уж + императив глагола к.д.'를 살펴보자. 화자는 이 구문을 사용하면서 겸양의 뜻 이외에도 주변 상황이나 여타의 이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부탁을 한다는 뜻, '할 수만 있다면 부탁하지 않았다(Я бы не просил, если бы не...)'는, '부탁의 부득이함(вынужденность просьбы)'을 은연중 표현할 수 있다.<sup>34)</sup>

34) М. Г. Безяева(1998) с. 74.

а) (Мать пошла с милиционером к прокурору. Дорогой пыталась заговорить с милиционером Мельниковым.)

— Сыночек, што, шибко он его зашиб-то? Сколько же ему дадут, если сидит-то станут?

Милиционер шагал широко. Молчал.

— Ты уж разьясни мне, сынок, / не молчи уж... / Мать-то и у тебя небось есть, жалко ведь вас, так жалко, што вот говорю -- а каждое слово в сердце отдаёт. Много ли дадут-то? (В. Шукшин, «Материнское сердце»)

б) — А попрошу документы, — сказал он сухо. Никто не ждал такого оборота. Притихли.

— Зачем? спросил социолог.

— Рассказывая ему... А кто вы такое?

— Да я же вам только что объяснил.

— Документы.

— Ну, слушайте... уж поверьте, / если бы я не имел права спрашивать вас, / наверно, меня бы сюда не пустили.

(В. Шукшин, «А поутру они проснулись»)

예문에서 보여지듯이 'уж 구문'에는 흔히 화자가 자신이 이런 부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청자에게 설명하는 말이 표면적으로 기술되든지, 문맥적 암시되든 한다. 우선 예문 a)에서는 살인죄로 체포된 아들을 걱정하는, 나이는 어머니가 경찰에게 너도 어머니가 있지 않느냐 라고까지 하면서 아들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고, b)에서는 화자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에게 자신이 신분증은 없지만 그 장소에 들어올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단순히 'разьясни'나 'поверьте'를 쓸 수도 있지만 화자는 уж를 첨가함으로써 상황에 더 적합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어를 배우는 외국인에게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구문 중 하나가 바로 두 번째 구문인 'мне бы + объект просьбы'이다. "Мне бы к пятому."나 "Мне бы в Киев."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행위동사가 없다는 것도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구문이 가지고 있는 숨은 뜻에 있다. 우선 이 구문은, 이미 언급했다시피 일상대화에서 부탁을 하고자 할 때 겸양의 뜻을 나타내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부탁을 행하는 데 청자에게 불편함이 있을 것을 인식하고 — 그렇다고 무엇인가 일상에서 벗어난 부탁을 하는 것은 아니다 — 미안해하는 화자의 감정이 숨겨져 있다. 이 구문에서 부탁 대상이 오는 자리에 지소형이 놓이는 경우가 많다거나 только, лишь



등의 어휘가 자주 쓰인다거나 하는 것 역시 화자의 미안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예라 하겠다.

- а) — Вам кофе?  
 — Мне бы чайку. (Мне бы только водички.)  
 б) — Простите, ванночку можно принять? И мне бы махровное полотенце  
и детскую шампунь. (В. Вуквин, «Точка зрения»)

커피를 권했을 때 그것보다는 다른 것을 달라는 부탁은 그 행위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상대의 제안을 거절하고 다른 것을 부탁한다는 대에 화자의 미안함이 있는 것이고 б)의 경우는 내용상 전혀 모르는 집에 들어와 욕실을 쓰겠다는 것만으로도 불편할 것인데 타월과 어린이용 샴푸까지 부탁하려니 화자로서는 당연히 미안한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이런 때 “Дайте мне чайку.”나 “Дайте мне махровное полотенце и детскую шампунь.”이라고 말한다면 객관적인 의미는 전달이 되겠으나 청자로 하여금 ‘어떻게 저리 뻔뻔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 수 있을 뿐더러 본인의 발화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부탁표현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떠한 대상을 빌리려하는 경우에 쓰는 ‘объект просьбы + не найдется с ИК-3 с центром на глаголе’와 ‘объект просьбы + нет с ИК-3 с центром на слове ‘нет’가 있다. 이 구문은 화자가 겉으로는 대상이 없다는 것을 표면화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대상이 있을 것이라는, 적어도 일반적으로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의문을 전달하는 긍정형 구문(У вас есть соль?)과는 달리 이 구문은, 물론 경우에 따라 의문을 나타낼 수도 있으나, 훨씬 많은 경우 부탁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외국인으로서 이 구문을 사용해 어떠한 물건이나 대상을 구하려 할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숨겨진 뜻에 조심을 해야한다. 즉,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일반적으로 청자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옆 집 주부에게 가서 “у вас нет соли?(소금 좀 빌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런 것이나, 만약 회사에서 동료에게 똑같은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전혀 적합하지 않은 말이 될 것이다. 그것은 화자가 사용한 구문이 문법이나 어법적으로 틀려서가 아니라, 그 구문이 가지는 뉘앙스와 발화장소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서에서 중학생쯤으로 보이는 남학

생에게 가서 “담뱃불 좀 빌립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어긋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라 하겠다.

- а) — Сан Саныч, / закурить не найдется? (х/ф «Спортлото 82»)  
 б) — Не найдется спички? (А. Н. Рыбаков, «Дети Арбата»)  
 в) — У вас нет чего-нибудь немножко выпить? Грамм пятьдесят?  
 — У нас не распивочная, — высокомерно ответила официантка.  
 (В. Токарева, «Сто грамм для храбрости»)

이제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러시아어는 의사전달유형(коммуникативный тип) 부탁을 표현할 때 표면적 방법(эксплицитный способ)보다는 이면적 방법(имплицитный способ)을 선호한다. 이면적 방법의 특징은 특정 의사전달과제 자체나 구성요소가 어휘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어휘, 통사구조, 억양, 문맥 등의 상호작용으로 의사전달과제가 표현된다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특징이 러시아어를 배우는 외국인에게 어려운 문제로 다가온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러시아어를 강의할 경우, 바로 이 이면적 방법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그 통사론적 구조 이외에 그 구조가 가지는 특정 의미나 작게는 뉘앙스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부탁을 표현할 때, 표면적 방법(эксплицитный способ)과 이면적 방법(имплицитный способ) 이외에도 러시아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 바로 ‘의사전달의 반복(коммуникативное дублирование)’이 그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러시아어는 공동의 의사전달과제 — 본 논문의 경우에는 ‘부탁’이라는 의사전달과제 — 로 묶일 수 있는 вариативный ряд가 발달해 있다. 러시아어 발화의 특징 중 하나는 вариативный ряд가 발달했을 뿐 아니라 같은 의사전달과제를 표현하는 구조를 여러 개 동시에 나열한다는 것이다. 이를 ‘의사전달의 반복’이라 부르는데, 이 현상은 특히 여러 가지의 의지표명(волеизъявление) 구문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Иди, сходи, принеси хлеб.”이 전형적인 의사전달의 반복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정중한 표현의 어휘들을 반복적으로 나열하는 것 역시 러시아어의 특징에 해당하는 의사전달의 반복인데, 사실 의사전달 반복은 우리 한국인에게 그리 새로운 사실로 다가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어 역시 러시아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의사전달 반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Будьте добры, передайте, по-

жалуйста, книгу, если вам не трудно.”와 같은 문장을 한국인의 경우 그다지 커다란 문제없이 습득할 수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 5. 결론을 대신하여

위에서 우리는 러시아어에서 의사전달유형 부탁의 *вариативный ряд*를 이루는 여러 구문들을 그 형태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물론 본 논문에서 언급된 것이 러시아어 부탁 표현의 전부는 아니다. 한 언어의 *вариативный ряд*를 구성하는 모든 구문을 나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보여진다. 언어가 사회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자기변화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어 부탁 표현 방법 중 전형적이라 판단되는 구문들만을 모아 살펴보았다.

위의 분석을 통해 잠정적 결론을 내려보면 러시아어의 부탁 표현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갖는다.

- 1) 의사전달유형 '부탁'의 표현 방법의 선택에 있어 이면적 방법이나 커뮤니케이션 반복과 달리 표면적 방법의 쓰임은 제한되어 있다.
- 2) 부탁을 표현할 때 존대표현의 어휘적 요소의 쓰임이 제한되어 있다.
- 3) 의사전달과제의 이면적 표현 방법에 속하는 구조들은 원칙적으로 다의성(многозначность)을 갖는다. 다시 말해, 동일한 통사-어휘 구조가 여러 가지 언어수단의 상호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사전달과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 4) 동일한 의사전달과제를 표현하는 구조들 사이에도 다양한 뉘앙스의 차이가 존재한다.
- 5) 부탁을 표현하는 구문들 사이에는 레지스터나 장르의 차이가 존재한다.

위의 결론이 말해 주듯이 *вариативный ряд*의 개념을 통한 문제 접근 방식은 단지 그 표현 수단뿐만 아니라, 의미나 레지스터, 활용 범위 등의 측면에서도 구조를 시스템화하여 조직할 수 있게 하고 결국은 더 나아가 각각의 구조가 다른 구조에 비추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즉, 커뮤니케이션 분석과 *вариативный ряд* 개념은 단순히 부탁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나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체계화 시켜, 각각의 구조들 사이의 뉘앙스, 레지스터, 활용 범위의 차이를 밝

혀낸다. 이를 잘 응용하면 외국인이 러시아어를 학습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Арутюнова Н. Д.(1981) “Фактор адресата”, в кн.: *Сер. лит. и языка*, т. 40, No. 4, Изд. АНСССР.
- Безяева М. Г.(1996) “Русский диалог сквозь призму систем других языков”, в кн.: *Вопросы русского языкознания*, Вып. VI, М.
- \_\_\_\_\_ (1997) “О семантических особенностях реализации целеустановок волеизъявления и выражения желания говорящего в русском диалоге”, в кн.: *Конференция Теория и практика русистики в мировом контексте, 30 лет МАПРЯЛ*, М.
- Бельский А. В.(1953) “Побудительная речь”, в кн.: *Уч. зап. МГПИИЯ*, т. 6.
- Брызгунова Е. А.(1971) *Звуки и интонация русской речи*, 3-е изд., переработанное, М.
- \_\_\_\_\_ (1979) “Смыслов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предложений”, в кн.: *Синтаксис текста*, М.
- \_\_\_\_\_ (1988) “Императивные высказывания в устной речи”, в кн.: *Императив в разно-структурных языках*, Л.
- Гловинская М. Я.(1992) “Русские речевые акты и виды глагола”, в кн.: *Логический анализ, Модели действия*, М.
- Грамматик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т. 1, изд. АНСССР, 1952.
- Мун Сун Вон(1994) “Система вариативных рядов собственно-вопросительных предложений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и их эквиваленты в корейском”, Дисс. КФН, М.
- Пешковский А. М.(1956) *Русский синтаксис в научном освещении*, М.
- Распопов И. П.(1957) “К вопросу о модальности предложения”, в кн.: *Уч. зап. Благовеще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имени М. И. Калинина, Историко-филологический факультет*, т. 8.
-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т. 1, Изд. Наука, 1982.
- Савельева Е. П.(1991) “Лексико-семантические группы — номинации побудительных речевых интенций”, в кн.: *Русский язык за рубежом*, No. 3.

- Формановская Н. И.(1984) *Употребление русского речевого этикета*, 2-е изд., М.
- Храковский В. С.(1986) Володин А. П. *Семантика и типология императива: Русский императив*, Л.
- Шахматов А. А.(1941) *Синтакси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
- Austin J. L.(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Clarendon Press.
- Scarle J. R.(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1. ect., Cambridge Univ. Press.
- \_\_\_\_\_ (1975) *Indirect speech acts - Syntax and semantics*, vol. 3, N. Y., Acad. Press.
- Vendler Z.(1976) *Illocutionary Suicide — Issues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London, Yale Univ. Press.

## Резюме

**Особенность выражения просьбы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Кан Сон Хи

Данная статья посвящена сопоставлению вариативного ряда высказываний, выражающих просьбу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В качестве основной единицы диалога принимается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й тип предложений (или высказываний), т. е. предложение с определенной целеустановкой и смысловым выделением слова внутри него. Каждому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му типу соответствует вариативный ряд конструкций, различающихся оттенками значений, соотношением средств различных уровней языка, а также регистрами и сферами общения.

В принятой нами концепции просьба — это выражение желания говорящего, чтобы слушающий совершил то или иное действие, которое он может, но не должен, не обязан совершать, что, в свою очередь, зависит от его желания.

Как известно, она выражается эксплицитным (лексически раскрыто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е задание) и имплицитным (лексически не раскрыто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е задание) способами, а также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м дублированием.

В нашей статье мы попытались определить ряд особенностей вариативного ряда просьбы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В результате анализа можно сделать следующие выводы:

1)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при выражении нейтральной просьбы конструкции с лексически эксплицитным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м заданием не являютс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ми:

— Конструкция 'прошу + инфинитив каузируемого действия + ИК-1 или ИК

-2' редко выражает собственно просьбу (в этом случае она связана с высоким регистром общения), и значительно чаще она передает раздраженное ил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е требование;

— Конструкция 'прошу + императив + ИК-1 или ИК-2 при двусинтагменном оформлении' выражает просьбу, но не нейтральную, но и сближающуюся с мольбой;

— Конструкция 'просьба + инфинитив каузируемого действия' выражает официальное вежливое требование, а не просьбу.

2)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вежливость часто не эксплицируется, а передается имплицит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Отсюда возникает трудность понимания русской звучащей речи для нос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то же время как русскому, так и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ам свойственно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е дублирование при выражении вежливости, хотя пр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разных средств.

3) Особенностью конструкций, в которых значение высказывания формируется взаимодействием средств различных уровней языка, является их большая потенциальная многозначность.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отмечена активизаци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редств различных уровней языка;

4) При выражении просьбы в некоторых конструкциях могут формировать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мысловые оттенки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го задания. Так,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ряд конструкций со значением самоуничижения, например "Мне бы водички", "Ты уж разъясни мне" и т. д. осложняется особыми оттенками этого значения.